

음쓰 처리시설 확충·개인컵 사용... 기후위기 안전도시 조성

(음식물 쓰레기)

서울시,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

10월 강동구에 음식물 시설 건립
음식물 360t, 음폐수 270t 처리
식당·카페 일회용품 사용 줄이고
개인컵 사용 인센티브 캠페인도

서울시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 구축 및 자원화, 친환경 생활 문화 확산, 오존원인 물질 배출 저감 등을 통해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 공공 처리 시설을 확충하고,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우선 10월 강동구에 음식물 처리 시설이 들어선다. 강동 음식물 처리 시설의 하



다회용기 사용 예시.

/서울시

루 음식물, 음폐수(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온 폐수) 처리량은 각각 360t, 270t이다. 음식물 쓰레기는 사료화하고, 음폐수는 바이오가스로 만들어 재활용하는

방식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내년 12월까지 서남 폐수처리 시설을, 오는 2029년 1월까지 난지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음식물 쓰레기를 탈수하는 과정에서 걸러져 나온 액체를 바이오가스화해 처리하는 서남 시설의 일일 처리 용량은 330t이다. 실시 설계 후 착공한다.

난지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이다. 하루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은 300t, 농축분뇨 처리량은 50t이며, 건립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갔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수거 시스템도 구축했다. 작년 시는 시민 편의와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중·감량기 보급을 확대했다. 관내 자치구에 RFID 종량기(1647대), 대형 감량기(35대)를 보급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생활 문화 정착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해 시는 식당·카페 등 소상공인 매장과 주요 거점에 다회용품·탈포장재 운영 기반을 마련해 폐기물을 줄였고, 친환경 소비 문화를 확산했다.

개인 컵 사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벌여 텀블러 사용을 늘렸고, 배달앱·장례식장·체육 시설·축제 등에 다회용기 이용 체계를 구축했다. 1회용품 포장재를 줄이고 재활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친환경 매장도 지원했다.

작년 시는 개인 컵 사용의 날 캠페인을 24회 운영해 일회용 컵 3만7000개를 원천 감량했다. 또 배달용 다회용기 이용

지역을 2023년 10개구에서 지난해 15개구로 늘려 일회용기를 22만개 줄였다.

다회용기 도입 정책을 시립 장례식장에서 민간으로 확대해 일회용기 328만개를 감량했고, 한강공원이나 대학 등에서 진행된 142개 축제·행사에서도 다회용기 160만개를 사용토록 했다.

오존 농도를 낮추기 위해 주요 원인 물질인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 발생 저감 대책을 수립해 시행했다. 관급 공사장에서는 환경표지인증도료를, 공공 간행물엔 친환경 잉크를 사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유증기 회수 설비(21개소) 기술 지원 및 친환경 세탁기(6개소), 회수 건조기(17개소) 설치 지원 등 VOCs 발생원 집중 관리를 추진했다고 시는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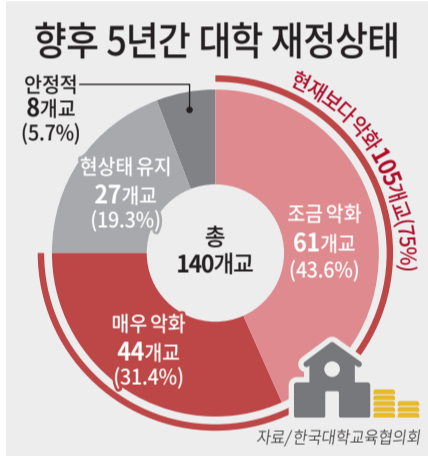
대학총장들, 최대 관심사 '재정지원 사업'

대교협, 140개교 대학총장 설문
응답자 53% "등록금 인상할 것"
75% "향후 5년 재정 악화 예상"

17년째 정부의 대학 등록금 동결·안화 정책이 지속되면서 총장들의 주된 관심이 '재정지원사업'과 '신입생모집'에 쏠렸다. '등록금 인상'과 '발전기금 유치'와 관련해선 전년보다 관심이 상승하며 대학의 어려운 재정상황이 반영됐다. 대학 총장 10명 중 7명 이상이 향후 5년 간 재정이 현재보다 악화할 것을 우려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총장 설문조사(1)'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해 192개교 회원 대학총장을 대상으로 진행해 140개교(응답률 72.9%) 총장들이 설문에 응했다.

현 시점 대학 총장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영역(복수 응답 가능) 1위는 '재정 지원 사업'(77.1%, 108명)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연간 2조원 규모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의



본격 도입으로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은 지난해(71.9%)보다 5.2%p 상승했다. '라이즈'는 교육부가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대학이 지역 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위는 '신입생 모집 및 총원'(62.9%, 88명)으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재정 지원 사업'과 '신입생 모집 및 총원'은 '총장 최대 관심사'로 변동이

없다. 3위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56.4%, 79명)이었다.

4위는 '등록금 인상'(55.7%, 78명)으로, 지난해(43.7%)보다 12.0%p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최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전국 사립대 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 90명 중 53.3%는 '등록금 인상안을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힌 비율도 42.2%에 달하며 총장들이 올해는 '등록금 인상'에 의지를 보인바 있다.

이밖에 ▲5위 재학생 등록 유지(38.6%, 54명) ▲6위 학생 취업 및 창업(35%, 49명)에 이어 7위는 '발전기금 유치'(30.7%, 43명)가 꼽히며 지난해(23.7%)보다 관심도가 7.0%p 상승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 상황이 악화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과제들이 관심사로 떠오른 모습이다.

향후 5년간 대학 재정 상태에 대한 예상을 묻자, 현재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한 대학이 105개교로 75%에 달했다. 61개교가 '현재보다 조금 악화될 것'이라고 답했고, 44개 대학은 '매우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 상태 유지'를 예상한 대학은 19.3%인 27개교에 그쳤다. '현재보다 안정적'으로 예상한 대학은 8개교(5.7%)로 나타났다. 이중 광역시 대학은 없었다.

대교협은 고등교육의 건강한 생태계 형성을 위해서는 대학에 안정적 재정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과, 과감한 자율성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교협은 "급변하는 대전환의 시대, 대학이 유연하고 신속한 혁신과 발전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자율적 생태계 조성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

안성~구리 고속도로 72.2km 구간 개통

광주시, 도로망 확충·지역활성화 기대

광주시를 통과하는 안성~구리 고속도로가 개통되며 지역 교통환경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 고속도로는 구리시(남구리 나들목)에서 안성시(남안성 분기점)까지 총연장 72.2km, 왕복 6차로로 수도권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핵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개통으로 인해 광주시는 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편의성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성~구리 고속도로 개통으로 광주시와 인근 지역 간 접근성이 대폭 강화되며 물류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기존 안성에서 구리까지 88분이 소요되던 것이 약 39분으로 줄어들어 이동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다.

특히, 시는 이번 고속도로 개통은 수도권 교통 흐름의 분산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상습 정체로 교통방란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혼잡을 줄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번 도로 개통은 광주시의 경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물류 이동이 원활해짐에 따라 기업 유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고속도로 주변 지역은 신규 주거 단지와 상업시설 개발로 인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이번 고속도로 개통에 이어 의왕~광주 고속도로, 용인~광주 고속도로, 경기광주TG 병목 지점 개선 사업 등 상급 기관에서 추진하는 도로망 확충 사업에도 적극 추진해 협조할 계획이다.

/경기=유진재 기자 yujin@

서울시, 공시지가 정확성·균형성 높인다

'공시가격 검증 지원 센터' 운영

서울시가 공시지가의 정확성·균형성을 높이기 위한 검증과 데이터 분석 작업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권역별·용도별 실태 조사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시는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 지원 센터를 가동기로 했다. 센터 운영은 광역 차원에서 상시 검증 체계를 마련하고, 표준지 공시가격 조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권역별·용도별 공시지가 실태 조사를 벌여 적절한 지가와 관련된 체계적인 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행정 구역간 공시지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시각화하는 서울형 공시지가 맞춤형 분석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만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시지가의 균형성,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시 차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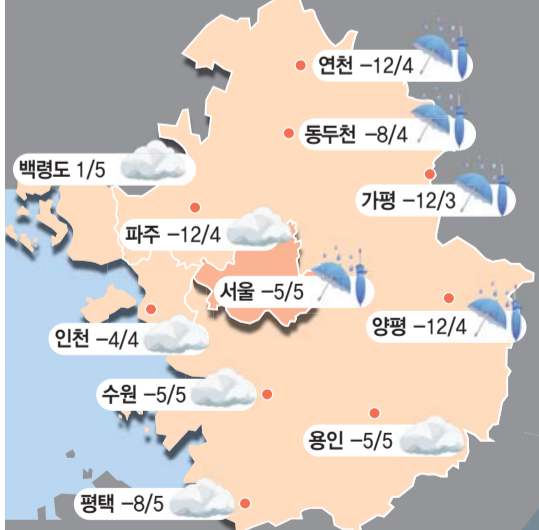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45 | 해질 / 17:38

1월 16일 (목)
음력 : 12월 17일

수도권 날씨
-5 ~ 5°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尹 체포에 日 정부 "한일 관계 중요성 변함 없어"
▲LA 산불 사망자 25명으로...예상보다 약한 강풍에도 위험 여전
/사진 AP/뉴스시스

▲트럼프 '대선 뒤집기 의혹' 특검 보고서 공개... 5가지 핵심 내용
▲尹체포, 각종 외신 홈페이지 1면 장식... "한국, 역사적 순간"

▲美, 중·러 기술 포함된 커넥티드카 금지 조치 확정
▲가자 휴전합의 목전...네타냐후, 긴급 안보회의 소집